

“복제형 건축보다는 ‘지금 여기’의 가치 담아야”



“단순함이 가장 풍성하다”(김개천)

외양을 석탑 형태에서 따온 괴산 법천사 대웅전. 전통사찰 형식을 창조적으로 변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개체간 관계에 주목한 연기(緣起)의 건축(김홍일)

처마와 마루 사이에 형성된 공간 사이로 이웃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상의상관성(依依相關性)’에 주목해 설계된 당시 무문암.



폐쇄적인 절 내부 자연과 연결(이일훈)

기둥으로 지지하고 있는 공간 아래 활공루라는 빈공간을 통하도록 해 폐쇄적인 절의 내부를 외부로 끌어냈다.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김개천, 김홍일, 이일훈씨에게 듣는 ‘현대식 사찰모델’

전 통건축에 담긴 사상을 읽어내는 책이 최근 잇따라 출간됐다. 전통사찰의 건축적 구조를 불교사상의 이해를 빌어 풀어내는 식의 책들이다. 사찰건축으로 대표되는 고건축을 모르고는 현대건축을 논할 수가 없기에, 실제로 건축가들은 사찰건축과 불교철학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사찰건축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읽어내고 구현하는 작업은 아직도 미진하다. 도심사찰이 속속 생겨나면서 도심형 절충식 사찰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나, 콘크리트 건물 위에 기와지붕이 어정쩡하게 얹혀있는 이들 모델은 건축가들 어법으로 ‘어리숙한 전통에 기대는’ 조악한 형태일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척박한 토양을 딛고서라도 ‘지금-여기’의 미학과 불교철학을 담아내려는 건축가들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건축가 김개천(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김홍일(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일훈(후리건축 대표) 씨가 보여준 현대식 사찰모델을 살펴보고 이 시대 사찰건축상 정립을 위해 요청되는 과제와 전망 등을 들어본다.



김개천(국민대 조형대학 교수) 김홍일(동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일훈(후리건축 대표)

전통사찰 양식에 창조적 변화를 시도한다

기와의 얹고 목재를 쓴 전통사찰의 건축 양식은 시대를 뛰어넘어 사찰 모델의 전형성을 제시해왔다. 그래서 현대식 사찰건축을 시도하는 건축가들은 형식과 재료 면에서 전통의 양식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충북 괴산군 두타산 자락에 자리잡은 법천사 절에 김개천의 경우, 대웅전을 아담드리 나무기둥 대신 콘크리트와 까만 벽돌로 지어 올렸다. 3층 높이의 단층 대웅전은 외양을 석탑의 형태에서 따와, 단청이나 기와 없이도 절집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내고 있다. 실제 대웅전 뒤로 법당 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전통적인 가람 배치와 관련해 탑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도 보인다. 대웅전 내부에도 사과의 변형은 이어져, 후불탱화 역시 불상 뒤편 창문을 통해 보이는 두타산 능선이 대신하도록 했다. 자연과 부처는 들어오라는 사상의 반영이다. 김홍일 교수가 설계한 충남 당진군 무문암과 충북 논산시 관동사는 전통양식의 배치를 따라 사찰 분위기를 살리는 가운데 현대적인 형태를 모색한 건축물이다. 바깥으로 노출된 기둥이 두 개의 수평면을 떠받치는 형태로 설계된 무문암 전각들은 처마와 빔마루 형태를 설정함으로써 전통건축의 양식을 끌어올렸다. 대웅전은 유리에 필름을 붙여 한지 느낌이 나도록 했다. 김홍일 교수는 “처마와 마루 사이에 형성된 공간 사이로 이웃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와 건축물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개체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기(緣起)의 건축이다.

최근 설계를 끝내고 올 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양평 금회법당(설계 김개천) 역시 전통적인 ㄷ자 가람 배치를 살리면서 재료에 변형을 준 현대적인 사찰 모델 사례로 꼽힌다.

파격적 시도, 그 안에서 무형의 법문이...

전통 사찰을 넘어서 새로운 사찰 양식을 선보이는 작업도 다수 진행됐다. 외부 형식에는 파격을 시도했고, 그 내부에는 불교사상을 더욱 풍성하게 반영했다. 이일훈씨는 ‘지금-여기’의 건축자재로 보편화된 콘크리트를 이용해 현대사찰을 설계했다.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은 기둥으로 지지하고 있는 공간 아래 활공루라는 빈 공간을 통하도록 설계해, 다분히 폐쇄적이었던 절의 내부 공간을 외부로 끌어냈다. 옥상 끝 계단꼭대기에는 풍경의 울림으로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을 마련, 도솔천을 형상화했다. 김개천 교수가 설계한 만해마을 만해사·담양 정토사 역시 파격의 미학을 담고 있다. 두 건물 모두 네모반듯한 시멘트 건물이 전부지만, 그 공간에 막상 들어서면 무형의 법문이 쏟아진다. 정토사의 경우 색(色)을 통해 공(空)까지 드러낸 일획의 건축이라 평가받는다. 정토사 법당은 문이 곧 벽이다. 문을 모두 열면 건축공간은 사라지고 자연만이 남게 된다. 반대로 문을 닫으면 완전한 건축공간만 존재한다. 문 위에 비치는 산그림자는 곧 ‘벽’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곧 자연이 되고 자연이 건축이 되는 함의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허공에 두 획을 그은 듯한 단순한 형태의 만해사

도 마찬가지로, 층계를 올라 안으로 들어서면 정자 텅 빈 공간만 남을 뿐이지만 산이 저만치 눈에 들어온다. 만해광장의 무대에도 두 개의 기둥이 전부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산이 세트처럼 앉아있다. 김개천 교수는 “가장 단순한 형태야말로 가장 풍성한 것을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건축미학 공존하는 새모델 고민해야

이처럼 몇 명의 건축가들이 이 시대의 사찰 양식을 고민하고 있던 하지만, 그와 관련한 작업은 절저히 개인의 원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과감한 설계를 시도한 몇몇 건축물을 제외하면, 이 시대 사찰양식의 전형이라 부를 만한 모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대 건축공학과 도창환 교수는 “조선, 고려, 조선 시대에는 나름의 건축 양식을 구현하고 있지만, 최근 100년 간 들어선 사찰 건축물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이렇다할 전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물론 특정한 전형을 찾는 것이 대안은 아니다. 포스트 모던시대에 절대적인 원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관심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나무 자방으로 이어지는 조각한 표현 양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늘고 있는 도심형 사찰 양식을 포함한 21세기 사찰 모델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축가 이일훈씨는 “이도저도 아닌 전통복제형 건축은 역사의 빈공간으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불교철학과 건축미학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새 시대 사찰 모델을 고민하는 것은 불교계와 건축계가 짊어져야 할 문화적 숙제”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sivhy@buddhapia.com

달라이라마 일본법문 및 사찰순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일본 가나자와, 음악당에서 2일간 법문을 하십니다. 이번 일본 법문은 인도에서만 친견하던 존자님을 일본에서 뵈고 법문을 듣고, 또한 벚꽃이 만발한 교토,오사카 등 사찰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인연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최저 관가로 30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출발일 : 4월 15일 ~ 19일(4박 5일) ● 여행경비 : 110만원
- 장 소 : 일본 가나자와 석천현립음악당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암

제 1일 4/15(금)	인 천 고마초 가나자와	JL 994	12:25 14:05	인천국제공항 출발 고마초공항 도착, 가나자와 시내 이동 후 일본 3대명원 견로쿠엔 관광 후 호텔 투숙 및 휴식(대옥장)
제 2일 4/16(토)	가나자와	전용버스		오전 : 요립사, 일본전통다원 허가시차야 관광 오후 :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석행사 참석 후 요립 투숙 및 휴식(온천욕)
제 3일 4/17(일)	가나자와 아마나카	전용버스		전일 석천현립음악당 달라이라마 법문 및 공석행사 참석 후 아마나카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온천욕)
제 4일 4/18(월)	아마나카 교 토	전용버스		아마나카 출발 벚꽃이 만발한 교토 도착 후 금강사, 청수사, 동본원사등 순례 후 호텔 투숙
제 5일 4/19(화)	교 토 오사카 인 천	JL 963	15:10 16:55	오사카로 이동, 사천왕사 순례 및 오사카 성,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등 시내 관광 후 칸사이 공항으로 이동 오사카 출발 인천공항 도착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불제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전구 (정품)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자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윤택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견전지용 초, 방생, 탑들이 행사용
- ▶ 청사초롱 및 초롱 같이대

연등 (정품)

- ▶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